

광양(光陽)의 「光」은 「햇빛」·「일광」의 뜻을 지녔으므로 「光陽」의 의미는 「따뜻한 햇빛 고을」이란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는데, 「晞」는 「밝음」의 뜻을 지녔으므로 넓은 의미로는 「光」·「晞」 모두가 「밝음」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으며, 한편 「陽」은 남쪽에 위치한 고을이면서 남수북산(南水北山 : 남-광양만, 북-백운산)의 형국을 한 고을에 「陽」자를 명명(命名)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의 관행을 따른 것으로 경기도 고양(高陽), 충청북도 단양(丹陽), 경상도 영양(英陽) 등이 있다. 그러므로 광양현(光陽縣)의 의미는 「따뜻한 햇빛 고을」이란 뜻이며 넓은 의미로는 「밝은 고을」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光陽」이름 변천 과정과 그 의미를 나름대로 살펴보았다. 「光陽」고을 최초 이름인 마로현(馬老縣)은 「밝은 고을」이란 의미를 지녔고, 마로현(馬老縣) 다음 이름인 희양현(晞陽縣)도 「밝은 고을」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현재의 광양현(光陽縣)은 「따뜻한 햇빛 고을」이란 뜻을 지녔는데 넓은 의미로는 「밝은 고을」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馬老 - 晞陽 - 光陽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이름의 맥인 「밝음」이란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음을 살필 수 있으며, 우리 고장이 백제 땅이 된 시기를 서기 370년경으로 추정한다면 광양 고을 이름을 상징하는 「밝음」이란 의미가 1,600여 년간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또한 「光陽」이라 불러오는 이름도 서기 940년부터 사용되어 왔으므로 1,060여 년간이 넘게 불러오 오는 뿌리깊은 이름을 갖고 있는 고장이라고 하겠다.

제6절 라말의 선승도선과 광양

1. 머리말

도선(道詵)은 신라하대(新羅下代)에 새로 도입되어 당시의 불교계에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고 있던 선종(禪宗)계통의 승려이다. 그는 선문구산과 가운데의 하나인 동리산(전남 곡성군 소재)과의 개조 혜철의 가르침을 받

37) 崔柄憲(최병헌), “道詵(도선)의 生涯(생애)와 羅末麗初(라말여초)의 風水地理說(풍수지리설)”, 『韓國史研究』7, 1975, p.104 이 글은 위의 논문에서 크게 의존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사진2-30 : 도선국사 영정 (순천시 선암사 소장)

38) 도선이 옥룡사를 창건하고 백계산에 동백림을 심었다고 전해짐. 그 목적에 대해서는 보호림으로 심었다는 설과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미래에 있을 지네산과 닭산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심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현재는 사적 제407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동백나무의 수령이 도선시대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의 설을 부정하는 주장도 있다.

39) 광양 다압면 신원리와 진상면 비평리를 경계하는 고도 432m의 산

40) 광양 진상면에 위치하는 고도 약1008m의 산

41) 옥룡·진상면을 가르는 고도 532m의 산

사진2-31 : 「동문선」-도선국사의 비명

아 광양(光陽)의 옥룡사에서 독자적인 선문(禪門)을 개설하였다.³⁷⁾ 37세에서부터 입적(入寂)하기까지의 35년을 그는 이 옥룡사(玉龍寺)와 역시 이곳 백계산에 있었던 운암사에서 보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신라(新羅)의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종교적 유대관계는 당시의 光陽에 여러 가지 영향, 예컨대 종교·사상·문화, 그리고 정치와 행정등에 영향을 끼쳤을 것임에 틀림없다. 백계산(白鷄山)의 동백림³⁸⁾은 아직도 푸르게, 도선이 光陽에 남긴 자취와 영향을 웅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거(典據)가 확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암산³⁹⁾, 억불봉⁴⁰⁾ 국사봉⁴¹⁾ 등의 명칭은 道誥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어진다. 우리가 광양인으로서의 道誥의 행적과 사상을 주목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도선국사 비(碑)의 건립경위

오늘날 도선에 관한 자료는 여러 가지가 남아 있으나⁴²⁾ 대부분은 후세의 부회(附會)작으로 가치를 잃고 있다. 따라서 본 원고는 비교적 그의 생애를 신비적인 요소없이 기술하고 있는 최유청의 「옥룡사 왕사도선가봉선각국사교서급관고」와 최유청의 「백계산 옥룡사증시선각국사비명명서」를 근거로 하였다.⁴³⁾ 그 중에서도 최유청의 「碑銘」이 비교적 상세하다. 오늘날 비석은 남아있지 않고 단지 그 비문만이 「동문선」에 수록되어 전해오고 있다.⁴⁴⁾ 그런데 일제시대에 이 비명의 전문과 아울러 그 비음기의 전문이 발견되어 이 비석의 건립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⁴⁵⁾ 이



비음기에 의하면 이 비문의 찬자(撰者)는 최유청, 그 서자(書者)는 그의 처남인 정서였는데 의종즉위 4년(1149) 10월에 왕명으로 선술하게 되어 그 다음해 7월에 비문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비문이

지어지고 비석이 완성된 다음해인 의종 5년(1151)에 최유청과 정서가 모두 왕제(王弟) 대령후 경(大寧候 暲)이 참소를 입는 왕실의 음모사건에 연루되어 최유청(崔惟淸)은 경남유수사로 좌천되어 이후 충주목사·경주목사 등으로 전전하였고, 정서(鄭絃)는 동래(東萊)로 유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비석은 세워지지 못하고 개경 국청사의 뜰에 20여 년간 버려지게 되었다. 그 후 무신난(武臣亂)이 일어나고 명종이 즉위하자 명종 2년(1172)에 드디어 그 비석은 광양현의 세공선으로 옥룡사에 옮겨 세워졌고 그 뒷면에 그 내력을 적게 되었는데 이 비음기를 기록한 사람도 역시 당시 예부상서(禮部尙書)로 있던 최유청이었다. 이 道誥의 비가 세워지기 까지에는 많은 그의 법손들이 관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사람은 당시 운암사 주지였던 지문이었다. 운암사는 옥룡사와 더불어 광양의 백계산에 있었던 사찰로서 경문왕 6년(865) 도선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져 왔고 또 대대로 그의 법손들이 주지하던 곳이었다. 비음기는 지문이 운암사에서 옥룡사의 주지로 옮겨졌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가 개경의 국청사에 버려진 비석을 옥룡사로 옮겨 세우는 작업을 총괄한 사람이었다.

비음기의 끝에는 옥룡사파(玉龍寺派)의 정손자(正孫子) 10인이 열거되어 있는데 승계(僧階)가 중대사(重大師)인 자가 7인, 대사(大師)가 1인, 대덕(大德)이 2인 이었다. 또한 명종 3년(1173) 道誥의 법손들이 대를 전하면서 주지하게 된 사찰인 운암사(雲岩寺)를 비롯하여 미호사(米岾寺)·도선사(道誥寺)·삼국사(三國寺)의 네 곳이나 되었다. 이 두가지 사실은 당시 광양 옥룡사파의 막대한 세력을 짐작하게 하는 좋은 근거가 된다.

3. 도선의 생애

도선의 출생을 「비명」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국사(國師)의 휘는 도선(道誥)이요, 속성은 김씨이며, 신라국 영암(靈巖)사람이다. 그 선대와 부조(父祖)는 역사에서 기록이 빠졌다. 혹자는 이르기를 그가 태종대왕의 서손(庶孫)이라 한다.⁴⁶⁾』

이에 의하면 도선의 俗姓은 김씨이며 신라 영암인이었으며 그의 세손과 부조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그 당시 신분을 알 수 있는 선

42) 최유청(崔應淸)과 최유청(崔惟淸)이 각기 찬술한 것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도선 관계자료가 있다.

- ① 諫要十條, 「高麗史」世家, 太祖二十六年條
- ② 金寬毅, 「編年通錄」(「高麗史」, 高麗世系條)
- ③ 閔淸, 「木朝編年綱目」(「高麗史」, 高麗世系條)
- ④ 「龍飛御天歌」
- ⑤ 「世宗實錄地理志」, 金羅道靈巖郡條
- ⑥ 「東國輿地勝覽」, 金羅道靈巖郡條, 康津縣條 및 光陽縣條
- ⑦ 朝鮮總督府, 「朝鮮寺刹史料」
- ⑧ 「智異山華嚴寺事蹟」

43) 전자는 인종(1123~1146)의 명에 의해 찬술되어 「東文選」 권27에 수록되어 있고 후자는 의종 4년(1149) 10월에 왕명으로 찬술하게 되어 다음해 7월에 비문이 완성되었으나 「동문선」 권117 수록) 비가 옥룡사에 세워진 것은 그후 명종 2년(1172)이었다. 이 글에서는 번거러움을 피하여 후자를 「비명」으로 약칭하겠다.

44) 옥룡사가 소재하는 옥룡면 추산리의 주민들에 의하면, 비는 1920년 중엽까지는 있었으나 이후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손되었다 한다.

45) 今西龍, “玉龍寺 先覺大師碑銘ヲ就いて” 「高麗史研究所收」. 여기에서 비음기의 전문을 소개하고 있다.

46) 원문교감은 「光陽市誌」 제3권 한문학과 금석문, 제3장 금석문 참조.

승(禪僧) 30여 인 가운데 신라왕족 진골성인 김씨가 전체의 절반인 15인이나 되며, 그들 선조의 대부분은 본래 경주인(慶州人)으로 진골신분이었으나 그들 대에 와서는 이미 낙향하였거나 몰락하고 있다. 그들은 정착하였거나 아니면 지방의 유락(流落)한 가문의 출신이었으며 중앙관직에 출사(出仕)하는 경우에도 육두품이하의 관직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신라하대에 와서 계속된 중앙진골유족내부의 정쟁과정에서 밀려나 지방에 낙향하여 본관을 달리하면서 토착세력을 형성하는 경향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때 태종무열왕의 서손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으나, 그의 세손과 직접 무열왕과 직결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진골유족과 어떤 관계가 있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정할수 있겠다.⁴⁷⁾

47) 최병현, 前揭論文, pp.108~109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을 가진 도선은 흥덕왕 2년(827)에 영암에서 태어났다. 『碑銘』에 의하여 그의 생애는 5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1기는 출생부터 15세까지의 유년기(幼年期), 제2기는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화엄수학기(華嚴修學期), 제3기는 20세부터 23세까지의 선종수업기(禪宗修業期,) 제4기는 23세부터 37세까지의 방랑수련기(放浪修鍊期), 제5기는 37세부터 72세로 입적하기까지의 옥룡사 주지기(玉龍寺 住持期)⁴⁸⁾ 이다.

48) 최병현, 前揭論文, p.110



사진2-32 : 도선국사비(2003년 복원)

우선 제1기의 유년기는 『碑銘』에 『모친 강(姜)씨의 꿈에, 어떤 사람이 광채나는 구슬 한 개를 주면서 삼키라 하였는데, 삼킨 후 태기가 있었다. 만삭이 되도록 매우 것 비린내 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독경과 염불에만 뜻을 두었다. 이미 젖먹이 때부터 보통 아이들과는 아주 달랐고, 어릴 때 장난을 하던지 울 때에도 그의 의향이 마치 불법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음이 있었다. 그의 부모가 반드시 명승(名僧)이 될 줄 알고 마음속으로 중이 되는 것(出家)을 허락했다.⁴⁹⁾』고 하여 그의 부모는 오직 독경(讀經)과 염불(念佛)에만 뜻을 두었다고 하며 도선이 승려가 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또한 도선은 어려서부터 불법을 공경하였다고 하여

그의 가문이 일찍부터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어서 그는 유년시절을 불교적인 분위기속에서 성장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의 출생에 대하여 다르게 기술된 것이 있는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영암군 고적조(古跡條)에는 “도선(道詵)의 모(母)는 최(崔)씨이며 그녀가 집안에 열린 길이가 한자나 되는 외를 먹고 임신이 되어 도선(道詵)을 낳았다.”고 되어

49) 원문교감은『光陽市誌』제3편 한문학과 금석문 제3장 금석문. 2005년 光陽市誌 編纂委員會

있다. 그러나 『碑銘』의 출생기록이 여러문헌을 비교 검토한바 올바르다고 판단된다.

다음 제2기 화엄수학기(華嚴修學期)에 대하여 『碑銘』에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나이 15세가 되자 총명하고 숙성하며 겸하여 기예에 통하였다. 월유산 화엄사(月遊山華嚴寺)에 가서 머리 깎고 불경을 읽었는데, 한 해도 채 못 되어 대의를 통달하여 문수(文殊)의 미묘한 지혜와 보현(普賢)의 법문(法門)도 모두 깊이 깨달으니, 여러 학도들이 놀라고 칭찬하며 귀신같은 총명이라 했다.⁵⁰⁾』

50) 원문교감은 前揭書 參照

위의 내용에 의하면 도선은 15세(문성왕 3년, 841)에 월유산(月遊山) 화엄사(전남구례에 소재함)에 가서 중이되어 불경을 공부하였다. 월유산 화엄사는 전남 구례에 있는 신라화엄십찰(新羅華嚴十刹)의 하나인 화엄사이다. 그가 통달 하였다는 대의(大義)는 화엄경(華嚴經)을 의미하며, 또 그가 깨달았다는 문수(文殊)의 묘지(妙智)와 보현(普賢)의 현문(玄門)이라는 것은 문수(文殊)는 지혜(智慧), 보현(普賢)은 행원(行願)을 각각 위주로 하는 보살로서 이 두 보살은 화엄종에서 가장 중시되는 양대보처보살(兩大補處菩薩)인 것이다. 이와같이 도선은 여러 다른 선승과 마찬가지로 그의 승려생활을 신라 중대 교종의 대표적 종파였던 화엄종(華嚴宗)에서 시작하고 있다.⁵¹⁾

51) 崔柄憲, 前揭論文 p.111

그 다음 제3기 선종수련기(禪宗修鍊期)에 대하여서는 화엄수학기사(華嚴修學記事)에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성왕(文聖王) 8년(846) 20살때에 이르러 갑자기 생각하기를, “대장부가 마땅히 법을 떠나서 고요히 살아야 할 것인데 어찌 문자(文字)에만 고수하고 있겠는가” 했다. 때마침 혜철대사(惠徹大師)가 서당지장(西堂智藏) 대사에게 밀인(密印)을 전해받고 귀국하여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법석(法席)을 여니 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대사가 선문(禪門)에 가서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 혜철대사가 그의 총명함을 가상히 여기어 지성으로 가르쳤다. 무릇 이른바, 말없는 말과 법 없는 법을 가르치니 환하게 깨달았다.⁵²⁾』

52) 원문교감은 前揭書 參照

이러한 내용으로 보건대 도선은 화엄공부(華嚴工夫)를 시작한지 6년째인 2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화엄종(華嚴宗)의 관념적·현학적 교학에 의한 해탈의 한계를 느끼고 언어와 문자를 거부하는 선종(禪宗)⁵³⁾으로 개종

53) 禪宗의 수행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不入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이란 말이 있다.

하여 동리산맥(桐裏山脈)의 개조(開祖) 혜철(惠徹)의 문하에서 선(禪)을 수업(修業)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념적이고 현학적인 화엄종(華嚴宗)을 비롯한 중대(中代) 교종(敎宗)의 한계와 모순에 대한 반성이 당시의 불교계에서 일어나 그 해결책으로 당시 당(唐)에서 성행하던 선종(禪宗)이 새로이 수입되어 신라에 있어서 선종구산(禪宗九山)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도선(道詵)의 선사(先師)이었던 혜철(惠徹, 791~861)은 속성은 박(朴)씨이며 경주인(慶州人)이었다. 일찍이 출가하여 처음 화엄십찰(華嚴十刹)의 하나인 부석사(浮石寺)에서 화엄학을 배우다가 헌덕왕(憲德王) 5년(813)에 당에 가서 서당지장(書堂智藏)에게 법(法)을 얻고 문성왕(文聖王) 원년(839)에 돌아왔다. 귀국한 후 동리산(桐裏山,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안사(太安寺)에서 선문을 열었다.⁵⁴⁾ 그런데 혜철에게 밀인(密印)⁵⁵⁾을 전해준 서당지장(西堂智藏)은 마조도일(馬祖道一) 문하(門下)의 수제자의 1인으로 강서(江西) 홍주(洪州) 개원사(開元寺)에서 선문(禪門)을 열고 있던 사람이었다. 서상지장(西尙智藏)의 문하(門下)에는 신라승(新羅僧)으로 혜철(惠徹)뿐만 아니라 그의 법형(法兄)으로 가지산파(迦智山派)의 개조(開祖) 홍척(洪陟)이 있어서 신라의 선종구산의 가운데 3파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지산파(迦智山派)의 도의는 장흥의 보림사(寶林寺)에 선문(禪門)을 열고 있어 혜철의 태안사(속성)와 함께 전라도 지역에 서당지장문하(書堂智藏門下)의 3파가 있었던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⁵⁶⁾

그 다음의 제4기는 선종에서의 인가(印可) 후의 방랑수련기로서, 「비명」에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23세에 천도사(穿道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대사가 이미 깊은 이치를 통달하고는 거처하는 곳이 일정치 않았다. 연하(煙霞)를 밟고 천석(泉石)에 앉아 그윽함을 찾고, 절승한데를 따라 일찍이 게으름이 없었다. 혹은 운봉산 위에서 도굴을 파고 참선도 하고, 혹은 태백산 바위 앞에서 떠 집을 짓고 여름을 지나기도 했다. 이름이 널리 퍼져 전국에서 숭배하였으며, 도를 행하는데 감응(感應)이 있어 신기한 자취가 자못 많았으나, 요긴치 않는것은 기록하지 않는다.⁵⁷⁾』

이 내용을 살펴보면 도선은 혜철로부터 인가(印可)를 받은 후 천도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운봉산(雲峰山)이나 태백산(太白山) 등 각처를 유람하면서 수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승(禪僧)의 방랑수련은 수행 과정

54) 禹貞相·金煥泰, 『韓國佛敎史』(信興出版社, 1968) p.76

55) 선종에서 이심전심하여 전교하는 것을 조인(祖印)?심인(心印) 또는 밀인(密印)이라 한다.

56) 崔柄憲, 前掲論文 P.112

57) 원문교감은 前掲書 參照

상 빼 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⁵⁸⁾ 아마도 이 시기에 도선이 풍수지리설과 관련을 맺게 되었던 것 같다. 도선과 풍수지리설의 관계는 다음 절에서 상술하기로 하겠다.

제5기는 옥룡사 주지기로서 「비명」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이 시기가 본고의 직접적인 목적이 되는 도선의 광양 체재기간이 된다.

『희양현(曦陽懸) 백계산(白鷄山)에 옥룡사란 옛절이 있었다. 대사가 돌아 다니다가 여기에 와서 그 그윽한 경치를 좋아하여 집을 중수하고 깨끗하게 평생을 마칠 뜻으로 혼자 앉아 있으면서 말을 잊은 지가 35년이나 되었다. 그리하여 사방에서 학도들이 구름 모이듯 그림자 따르듯 하여, 제자 된 자가 수백명이 되었다. 근기(根機)는 차별이 있으나 한 비로 널리 적시어 눈(目)만이 부딪히고 마음으로 전하여 제자들은 텅빈 그릇으로 왔다가 배워서 팍 채워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다.⁵⁹⁾』

도선은 15년간 걸쳐 각처를 유력(遊歷)하다가 37세 되던 때 광양 옥룡사에 주석(駐錫)하여 입적(入寂)할 때까지 35년간 내내 이곳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광양역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옥룡사라는 절은 도선이 여기에 정착하기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다만 도선은 이곳에서 독자적인 옥룡사파(玉龍寺派)를 개창한 것이다.

그의 제자의 수가 항상 수백인이나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옥룡사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지금은 1878년의 실화(失火)로 인하여 옥룡사와 비(碑)를 비롯한 모든 유물·유적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道詵은 효공왕(孝恭王) 2년(898)에 옥룡사에서 입적(入寂)한다. 다음의 「碑銘」을 보기로 한다.

『갑자기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나는 장차 갈 것이다. 대저 인연을 타고 이 세상에 왔다가 인연이 다 되면 가는 것은 이치의 떳떳한 것이니 어찌 싫어하겠느냐.”하고 말을 마치자 가부좌(跏趺坐)하고 앉아서 입적(入寂)하였다… 앓은 시체를 옮기어 절 북쪽에 탑을 세웠으니 유언(遺言)에 따른 것이다. 효공왕이 듣고 슬퍼하면서 특히 요공선사(了空禪師)의 시호를 주고 탑 이름을 증성혜등(證聖慧燈)이라 했다.⁶⁰⁾』

이러한 내용속에서 도선(道詵)과 신라왕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왕건 및 고려와의 관계를 볼때 흥미로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58) 崔柄憲, 全偈論文 P.113

59) 원문교감은 前掲書 參照

60) 원문교감은 前掲書 參照

4. 도선의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은 도읍(都邑)·궁택(宮宅)·능묘(陵墓)의 땅을 복상(卜相)하는데 쓰이는 일종의 지상학(地相學)으로서 산수의 형세국면을 관찰하여 그 자리가 도읍·궁택·능묘의 땅으로서 적(適)·부적(不適)을 說하는 것이다.⁶¹⁾ 풍수지리설이 신라에 전래된 것은 원성왕(元聖王, 785~798)이 이미 화장(火葬)과 능묘(陵墓)에 관한 유명(遺命)을 남긴 것으로 되어있는 경주 숭복사(崇福寺)의 비문으로 보아 통일 이후 당(唐)과의 문화교류가 잦아진 시기였다고 믿어진다. 다시 말하자면 풍수지리설은 도선에 의하여 처음으로 전래된 것은 아닌 것이다. 도선이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의 종조(宗祖)로 거의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존중되었던 것은 후세인의 부회가작(附會假作)으로 여겨진다.⁶²⁾

도선이 풍수지리설을 습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비명」의 내용도 다음과 같다.

『처음 대사가 옥룡사를 중건하기 전에는 지리산 구령(區嶺)에서 암자를 짓고 있었는데, 이상한 사람이 대사의 앞에 와서 뵈고 말하기를, “제가 세상 밖에서 숨어 산 지가 근 수 백년이 됩니다. 조그마한 술법이 있으므로 대사님께 바치려하니, 천한 술법이라고 비루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뒷날 남해의 물가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보살이 세상을 구제하고 인간을 제도하는 법입니다.”하고, 간데 온데 없어졌다. 대사가 기이하게 생각하고 그가 말한 남해의 물가를 찾아갔더니, 과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모래를 쌓아 산천의 순역(順逆)의 형세를 보여 주었다. 돌아본 즉 그 사람은 없어졌다. 그 땅은 지금 구례현(求禮縣)의 경계인데, 그 곳 사람들이 사도촌(沙圖村)이라 일컫는다. 대사가 이로부터 환하게 깨달아 음양(陰陽)오행의 술법을 더욱 연구하여, 비록 금단(金壇)과 옥급(玉笈)⁶³⁾의 깊은 비결이라도 모두 가슴속에 새겨 두었다.⁶⁴⁾』

이 내용을 살펴보면 도선이 풍수지리설을 전수받는 과정이 너무 신비하게 묘사되어 있어 기록대로 믿을 수 없으나 도선이 이인(異人)으로부터 당시 구례현의 경계인 남해강변(沙圖村 : 현재 구례군 마산면에 사도리(沙圖里)가 있음에서 전수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최유청이 「비명」과 거의 동시대인인 김관의(金寬毅)의 「編年通錄」에는 “時桐裏山祖師道誦入唐得一行地理法而還”이라 하여 도선이 당(唐)에 가서 일행(一行)의 지리법

61) 李丙燾, 「고려시대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0) p.21

62) 李龍範, “風水地理說” 「한국사」6. (국사편찬위원회, 1981) pp.272~273

63) 金壇은 신선이 사는 곳이고, 玉笈은 도교의 秘書(비서)를 감춘 상자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도교에 열중하였음을 뜻한다.

64) 원문교감은 前揭書 參照

을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도선의 입당설(入唐說)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도선의 입당설은 사실이 아니며 도선과 일행이 직접적인 사제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아마도 도선을 중국에서 풍수지리설의 대가로 꼽히는 일행과 대비시킴으로써 그의 명성을 높이려는 후세인의 의도적인 처사로 생각된다.

도선이 입적한 후 고려태조 왕건은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고(訓要十條) 또 그후 고려왕실이나 다른 정치세력들에 의하여 이용되는 과정에서 도선의 풍수지리설은 신비적인 도참설(圖讖說)로 많은 부회가작(附會假作)이 있게 되었다.⁶⁵⁾ 「道說記」, 「道說踏山歌」, 「道說秘記」 등이 그 예이다.)

도선이 풍수지리설을 전수받은 “異人”은 그의 선사인 혜철(慧徹)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전수지인 사도촌(沙圖村)은 구례현의 경계지역인 남해강변에 있었던 것으로 광양과 구례가 접경하는 섬진강 중류지역 부근이다. 이런 연유로 도선이 이와 가까운 광양의 백계산 옥룡사를 중건하고 주석(駐錫)하게 되었을 것이다.

5. 도선 풍수사상의 특징⁶⁶⁾

중국의 풍수술을 간접적으로 습득한 도선을 한국 풍수사상의 비조로 볼 수 있겠느냐는 문제의 제기가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선이 간접적으로 풍수지리의 이론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는 한반도 전역을 답사한 경험을 통하여 국토에 대한 각종 비기(秘記)와 답산가(踏山歌)를 남겼다.

그의 풍수사상은 한반도 산천의 형세를 유기적으로 파악하였다는데 그 중요함이 있다. 단순한 이론의 습득이 아닌 이같은 국토공간에 대한 경험적 풍수이론의 적용이 우리나라 풍수사상의 원조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어쨌든 중국으로부터 풍수지리 관계서적이 전래된 이래 고대 한국의 많은 선승들이 사찰이나 부도의 입지와 관련하여 풍수술법을 익히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도선을 우리나라 풍수사상의 원조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그가 한반도 전역을 답사하고 내놓은 비보압승풍수

65) 崔柄憲, 前揭論文 p.115

66) 崔昌祚, 「풍수지리·도참사상」한국사·국사편찬위원회 p.309~300, 이 글은 위책에서 크게 의존하여 집필되었음을 밝혀둔다.

67) 비보(裨補)와 압승(壓勝)의 풍수논리는 한국 풍수의 특징적 현상으로 「비보」는 地氣가 虛한 곳을 補하여 주는 방법이고 「압승」이란 지기가 지나친 곳을 눌러주는 방법이다.

68) 李夢日 「韓國風水地理思想」의 變遷過程(慶北大博士學位論文, 1990) p.84

69) 崔昌祚 「韓國風水思想의 歷史와 地理學」(정신문화연구 4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p.127~128

론(裨補壓勝風水論)⁶⁷⁾을 어느 정도로 평가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⁶⁸⁾

오늘날 남아있는 도선에 관한 자료는 양적으로는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고려왕실과의 관계나 풍수지리설의 전래 사실만을 말한 것뿐이고 또한 도선관련기사는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허황된 사실만으로 사료적 가치가 대단히 적다. 그러한 자료 가운데서도 가장 종합적이고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은 최유청(崔惟淸)의 「백계산 옥룡사 증시 선각 국사 비명병서(白鷄山 玉龍寺 贈諡 先覺國師碑竝序)」가 유일한 것이다.⁶⁹⁾

이런 자료들에 의존하여 그의 풍수사상의 특징을 정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 풍수의 초창기였고 또한 이후의 풍수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크게는 한국 풍수사상의 전반적인 특성을 규정짓는 것으로 생각한다.

도선의 풍수사상은 생활에 바탕을 둔 경험지리학이라는 점이다. 즉 지리(地理)와 천시(天時)의 법은 말 그대로 땅의 이치를 파악하여 원하는 바 입지를 최적의 장소로 삼고, 천후(天候)를 살피고 예견하여 가장 적절한 때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또한 경험 과학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6. 옥룡사지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

1) 옥룡사지 개황



사진2-33 : 옥룡사지 전경(1987년)



사진2-34 : 백계산 동백림(6,324본)

옥룡사지는 백운산(해발 1217.8m)의 한지맥인 백계산(해발 505.8m)의 남쪽 중턱에 자리잡고 있으며, 사역주변에 동백나무가 가득차 있어 절정을 이루고 있으며 사지의 면적은 전체면적 182,645㎡이며 사적 제407호로 1998. 8. 3에 지정·보호되고 있다.⁷⁰⁾ (1997년 광양시에서 동백나무 개체조사결과 6,324주가 자생하고 있음)

이 절은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선승이자 풍수지리설의 대가로 알려진 선각국사(先覺國師) 도선(道詵)이 서기 864년부터 그가 입적한 서기 898년까지 36년간이나 주석했을 뿐 아니라 통진대사(洞眞大師) 경보(慶甫)·지문(志文)이 그 법맥을 이어왔고 나말여초의 쌍비와 쌍탑(부도)이 전해져 그 이름이 일찍부터 알려져 왔다.⁷¹⁾

그러나 1878년에⁷²⁾ 화재를 당해 폐찰이 되면서 천년이상 밝혀왔던 법당은 꺼지고 사역(寺域)은 점차 폐허화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구례간전면에 거주한 청주 한씨 문중에서 절터를 중심으로 주변 일대를 매입, 그들 선대의 묘지를 조성하고 재실을 지으면서 옥룡지는 더욱 흔적을 잃어갔다.

70) 「文化財圖錄-國家指定文化財」全羅南道, 1998, p.312

71) 黃壽永「玉龍寺道詵國師碑」 「先覺國師道詵의 新研究」靈岩郡, 1988

72) 「光陽郡誌」1925年刊“寺刹條 玉龍寺 有道誌碑 戊寅 全燒碑 亦顛覆”

2. 옥룡사지발굴조사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4차례의 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도선과 경보의 부도와 비가 있던 탑비전지(塔碑殿址, 일명 비석거리)에서 부도를 보호하였던 2동의 건물지가 노출되어 최초로 나말여초시기의 부도전(浮屠殿)이 조사되었다.⁷³⁾

도선의 부도전에서는 8각 지대석 아래의 석곽내에서 도선의 석관(길이 95m, 너비 54m, 높이 48m)이 출토되었으며 석관안에는 그의⁷⁴⁾ 인골(人

사진2-35: 옥룡사지 도선국사 부도전(비석거리)-좌
사진2-36: 도선국사 유골(석관)우

73) 「光陽玉龍寺塔碑殿址 發掘調査 略報告書」順天大學校博物館, 1997

74) 인골감정은 최몽룡 서울대학교수, 박선주 충북대학교수, 정상수 영남대학교박물관 연구원 등이 하였음.

뼈)이 물속에 잠겨 있었다. 인골은 두개골에서 척추, 골반까지 원형대로 가지런히 놓여있고 척추좌우로 하지골(대퇴골, 비골)과 상지골(상완골 요골)을 추려서 놓았다.

이 인골로 보아 도선은 화장(火葬)을 하지 않고 우리의 전통 장법인 세골장(洗骨葬)을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선비(證聖慧燈塔碑)편은 발견되지 않아 이동되었거나 파손되지않고 묻어있을 가능성이 엿보였으며, 경보비(寶雲塔碑)편은 아주 잔편으로 100점이상 발견되어 산산이 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2-37 : 통진대사 비석 편

옥룡사의 초창(初創)과 관련된 유물이 '95년 지표조사와 '97탑비전지(塔碑殿址)발굴조사에 의해 사지(寺址)의 최하층에서 발견되었다. 그것은 선조문 계통의 평와편(平瓦片)들이며, 이 와편들의 편년은 8세기 초반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옥룡사의 초창(初創)은 도선국사가 옥룡사에 주석하기 시작한 시기보다 무려 150년이나 이른시기 즉 8세기 전반경(서기 700년대 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편년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화엄사의 창건연대를 생각해 볼 때 무리한 편년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절터의 건물지는 상층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대체로 조선시대의 건물지만 조사되었는데 여러동의 건물지가 노출되었고 “玉龍寺”, “成化十一年丙申” 1476년, “康熙二十” 1681년, “松峙” 명등의 명문와·분청사기 순백자 등의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건물지 아래층에는 여러층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현재 발굴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초창기의 유구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⁷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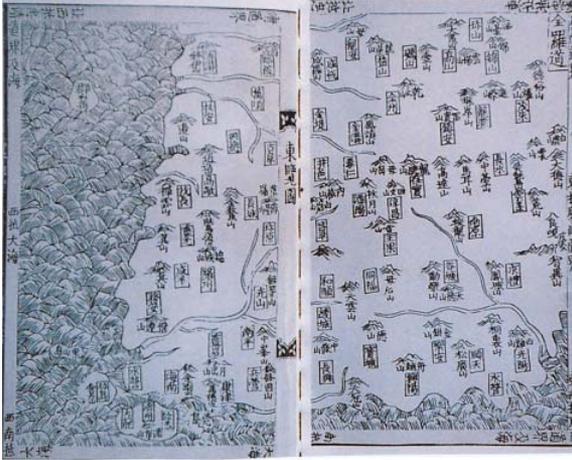
75) 『광양옥룡사지 3차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 자료』순천대학교박물관, 1999

7. 도선국사 비문(碑文)에 기록된 『백계산(白鷄山)』 지명의 위치에 대한 이해

광양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김광호(金光浩)씨가 도선국사 비문에 기록된 각종지명을 주요문헌과 옛지도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연구한 결과를 근거하여 『백계산(白鷄山)』 위치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기록하고 그 외의 『월유산(月遊山), 천도사(穿道寺), 구령(鵝嶺), 연기암(烟起庵), 창건한 절

(4개소)』에 대한 현재의 위치에 관한 사항은 제9편 민속 및 구비전승편에 기록하여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도선국사 비문에 기록된 지명인 「백계산(白鷄山)」의 위치는 현재 동백림이 감싸고 있는 옥룡사(玉龍寺) 옛터의 뒷산(현재의 백계산 : 253m)이 아니고 당시는 현재의 백운산(1,218m)을 지칭한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의 광양현 「山」 조에 「鎮山白鷄在縣北」으로 산 1개소만 기록되어 전하는데, 진산(鎭山)이란 고을 현·읍의 뒷산을 일컫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고을의 가장 높은 산을 가리킨다. 따라서 현재의 백계산은 253m, 백운산은 1,218m이므로 당시는 광양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현재의 백운산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1481~1530)의 원문내용 「白鷄山：在縣北二十里鎭山 山頭有岩 岩下有泉 泉辰白雲時 凡有渲輒應 齋戒不謹則泉固」 「業窟山：白鷄山 東支」라 기록되었는데, 이를 번역하면 「백계산：현의 북쪽 20리에 위치한 진산이다. 산머리에 바위가 있고 바위 밑에 샘이 있으며 샘 아래에서 때때로 구름이 일어난다. 무릇 비는 것이 있으면 문득 효험이 있고 재계(몸을 깨끗이 하고 조심함)하는 것을 삼가지 않으면 샘이 마른다.」 「업굴산：백계산 동쪽 지맥이다.」

상기 문헌기록 내용과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당시의 백계산(白鷄山)은 현재의 백운산(白雲山) 모습과 동일하며 특히 업굴산(業窟山)은 지금은 억불산(億佛山 : 1,008m)이라 하는데 백운산(白雲山) 동쪽 지맥



사진2-38 : 동람도(신증동국여지승람지도, 전라도)-좌
사진2-39 : 동여비고(광양현)-우

(支脈)이며, 현재의 백계산(白鷄山 : 253m)과는 지맥상 연관이 없다.

『동람도』(신증동국여지승람지도 : 1531년경 제작된 지도, 전남의 옛지도)에 의하면 광양지역은 「光陽 白鷄山」만 되어있고, 산 모습을 그린 것이 전부인데, 그 모습이 현재의 백운산 모습과 동일하다.

『동여비고』(東輿備攷 : 1682년경에 제작된 지도, 경북대학교 출판부)에 의하면 「白雲山一名白鷄 嶺山」이라 표기되어 있어 1개의 산에 2개의 지명 이름을 병기(併記)하였는데 처음으로 백운산(白雲山)을 지칭하며, 지명변경의 과도기적 현상이라 보인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18세기 중기에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에 의하면 광양 지역은 「光陽 白鷄山」이라 표기하고, 산 모습을 그린 것이 전부인데, 산의 위치와 모습이 현재의 백운산(白雲山)과 일치한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 간행한 1760년경에 제작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의 「光陽縣 順天鎮管圖」에 의하면 현재의 백운산 위치에 그대로 「白雲山」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1864년에 제작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 재판본」에 현 위치·지명 그대로 각각 「白雲山」「白鷄山」이라 표기된 이래 1872년 왕명(王命)으로 제작된 「光陽縣地圖」에도 똑같이 표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집필 : 광양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김광호